우암학원 창학 76주년
전남과학대학교
CHUNNAM TECHNO UNIVERSITY
WCC 세계적인 전문대학 선정!!

光州日報
74 SINCE 1952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협
대표번호 1644-7990
본점·여신사업부·문흥지점·양산지점·운암지점·매곡지점·첨단지점·동림지점·동광주지점·각화지점

1952년 4월 20일 창간 제22686호 1판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음력 1월 9일 2026년 2월 25일 수요일

‘전남광주 통합법’ 국힘 필리버스터에 막혔다

국회 법사위 통과…상법·형법 개정안 등과 함께 본회의 상정
처리 3월 초로 늦춰질 듯…대구경북·충남대전 통합법은 보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야권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때문에 의결에 차질이 빚어졌다.

여야 대치로 본회의 안건 처리가 무더기 지연되면서, 통합특별법 의결은 3월 초순께로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4면〉

국회는 24일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열고 법사위를 통과한 전남광주 통합특별법(대안)을 비롯해 상법·형법 개정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상정했다.

전남광주 통합법은 유일하게 법사위 문턱을 넘어 본회의 안건 중 7번째로 이름을 올렸다. 대구·경북이나 대전·충남 통합법안은 지방의회 반대와 주민 여론 수렴 부족 등을 이유로 처리가 보류됐다.

하지만 이날 9개 안건 가운데 강선우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1건만 의결됐다. 나머지 법사위 소관 4건, 행안위 소관 3건, 복지위 소관 1건 등은 국힘의 필리버스터에 막혔다.

민주당이 법안 처리에 나서자 국민의힘은 전남광주 통합법을 비롯해 8개 법안에 대해 전면적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시작되며, 토론을 중단하려면 시작 24시간이 지난 후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이 상정된 8개 안건마다 필리버스터에 나서고 야권이 강제로 종료하는 과정이 반복될 경우, 안건 하나당 최소 하루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이 시나리오대로라면 전남광주 특별법은 2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인 3월 3일 직전에야 표결 순서가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전남광주를 먼저 통합하고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으나,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지역 간 차별을 조장하는 민주당의 일당 독재”라며 반발했다. 조국혁신당 등 진보 성향 야당들도 충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본회의 상정 시점 조정을 촉구했다.

이들 야당은 또한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와 다당제 구현을 위한 선거제 개편 등이 선행돼야 한다’며 본회의 상정 시점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 정가에서는 2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3월 3일 전까지 법안이 처리되지 못할 경우,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선출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

법적 기반이 마련돼야만 선거구 획정과 행정 체계 개편 등 후속 작업에 속도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SNS를 통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강 시장은 “전남·광주 통합특별시는 결코 정쟁의 볼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대구·경북, 대전·충남이 멈춰 선 가운데 한마음으로 준비한 전남·광주만이 유일하게 법사위 문턱을 넘었으나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는 7월 1일 통합시 출범을 위해 한시가 급한 상황”이라며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업을 앞두고 정쟁 앞에 마음을 졸여야 하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남광주통합 특별법은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파격적인 행정 특례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 협의를 거쳐 매년 최대 5조원 규모의 통합경제지원금과 행정통합교부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조항과 미래 먹거리 산업 등에 대한 특례 등도 법안에 담겼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20만 전자·100만 닉스 코스피 또 천장 뚫었다

코스피가 5000선 돌파 한 달여 만에 ‘코스피 6000’ 돌파를 넘보는 가운데 국내 증시가 대형주를 중심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증시 호황에 힘입어 시가총액(시총) 1·2위 종목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사상 최초로 각각 ‘20만 전자’, ‘100만 닉스’를 달성했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23.55포인트(p) 오른 5969.64에 장을 마쳤다.

이날 장 초반 코스피는 미국 뉴욕증시 3대지수(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 S&P500, 나스닥)가 동시에 1%대 하락하면서 5800선 밑으로 내려서는 등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이어 기관들의 순매수로 빠르게 회복한 뒤 오후에는 상승폭을 키우며 6000선 돌파에 근접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기관이 2조 3700억원대 순매수세를 보이며 전반적인 코스피 상승을 견인했다. 반면 개인과 외국인 투자자들은 2조 2800억원, 1800억원씩 순매도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개인 투자자들이 오를 만큼 올랐다고 생각한 국내 주식을 팔며 차익 실현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업종별로 보면 금속(4.59%), 전기전자(4.19%), 제조(3.07%) 등의 상승폭이 컸다. 반도체 양대산맥인 대장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또다시 큰 상승폭을 보이며 신고가 경신을 성공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전 거래일보다 3.63% 오른 20만원에 거래를 마치며 처음으로 ‘20만 전자’를 달성했고, SK하이닉스는 종가 기준 100만 5000원으로 전 거래일에 비해 5.68% 뛰었다.이 밖에 SK스퀘어(6.38%), LG에너지솔루션(4.17%) 등도 상승폭이 큰 종목으로 꼽혔다.

코스닥은 전 거래일 대비 13.01p 오른 1165.00을 기록했다.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1500억원대, 500억원대 순매도했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2400억원 이상 순매수세를 보이며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혼선 부추기는 농정에 애타는 전남 농민 ▶6면
소년이 온다…5·18 영화 ‘밥’ 3월 개봉 ▶16면
홍건희 고향 복귀 … KIA 불펜 이끈다 ▶18면

사랑과 감사의 72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6]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강선우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

무소속 강선우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재석 263명 중 찬성 164명, 반대 87명, 기권 3명, 무효 9명으로 강 의원 체포동의안이 통과됐다.

과반 의석인 더불어민주당은 자당 소속이었던 강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당론을 정하지 않고 개별 의원의 판단에 맡겼다.

조국혁신당은 ‘찬성 표결 권고’를 당론으로 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여당에서 상당수 의원이 체포동의안에 반대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로써 강 의원은 법원에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용산의 한 호텔에서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봄이 찾아 온다고…매화 꽃망울 ‘활짝’ 광주 전남에 비가 내린 24일 오전 광주시 서구 무각사에 매화가 꽃망울을 터뜨려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